

28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

사 64:1~9

찬송가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 2장 (내 안에 있는 예수)

오늘 배울



1.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과 교회를 붙잡는 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2. 주님은 주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생각 밖의 큰일들을 베푸심을 압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랫동안이니 우리가 어찌 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사 64:5)

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 64:7)



을 이해하기

이사야 64장은 63장 15절에서부터 이어져오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입니다. 그중 7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빠져나오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구원받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사람들은 마땅히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혹 구원받은 이후에 ‘어찌 살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는 갈 것’이라는 안일하고 그릇된 생각에 나태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 왔다면 이제라도 돌이키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붙잡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교회학교의 선배들은 후배들이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 64:7)

And there is no one who calls on Your name, Who stirs himself up to take hold of You; For You have hidden Your face from us, And have consumed us because of our iniquities (Isa 64:7)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근하고 편한 관계이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인지 설명해 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것인지 마귀의 것을 붙잡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지를 허락받았습니다. 다음의 성경인물들이 스스로 무엇을 붙잡았는지 성경구절을 읽고 찾아 봅시다.
 - ① 엘리사(왕하 2:5~7), 룻(룻 1:16~18),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마을사람들(요 4:40~42)
 - ② 아합(왕상 21:20, 25)
 - ③ 르호보암과 유다방백(대하12:5~7)

2 “분발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나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성경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았는지 해당 말씀을 찾아 읽은 후 공통점을 찾아 봅시다.

- ① 수로보니게 여인(마 15:21~28)
- ② 여리고 근처의 두 소경(마 20:29~34)
- ③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막 5:25~34)

공통점 :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다”(신 31:18)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은혜 베풀기를 멈추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생활이 어떠해야 할지 시편 119편 9~11절 말씀을 읽고 정리해 봅시다.

4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적어 봅시다.

구분	한 주간 실천할 계획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전도생활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수 24:15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수

룻 1:17

화

왕상 19:10

↑

왕하 2:2

↓

왕하 2:4

↓

왕하 2:6

↓

눅 24: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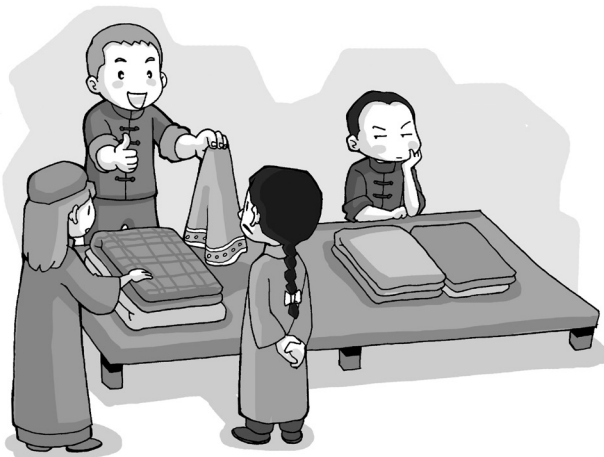
형과 아우

중국 한나라 때 유명한 옷감 짜기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기술은 그 일대에서 제일 뛰어났고 두 아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과 자신의 가능성을 굳게 믿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가업에 불만이 있고 항상 더 나은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두 아들에게 가장 아끼는 옷감을 똑같이 나누어주고 장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궁성 앞에서 큰 소리로 장사를 하여 더욱 집안을 빛낼 수 있었지만 작은 아들은 어떠했을까요?

확실한 믿음과 자신감은 어떠한 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3~24)



질문 있어요~



롬 10:12~13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을 먼저 믿어야 부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9~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9~10)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이름대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이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